




문서 번호	ESG-10
최종 개정일	2024.04.01
담당 부서	ESG경영팀

SECO 서진캠 환경경영정책

작성	검토	승인
		

1 목적

본 정책은 서진캠(이하 “회사”)가 경영활동 및 전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, 잠재적인 환경 리스크를 경감 또는 예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 적용 범위

본 정책의 적용대상은 서진캠의 임직원(임원과 직원, 비정규직 포함)으로서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을 포함한다. 또한, 서진캠의 협력업체, 고객 등 이해관계자가 본 정책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. 본 정책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한다.

3 기본 원칙

① 환경법규 준수 및 오염물질 관리

- 환경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하고 회사의 경영활동 및 제품, 서비스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사고, 분쟁, 민원 등의 환경 관련 리스크를 경감 및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친환경 공정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최적가용기술 도입을 통하여 대기, 수질, 유해화학, 토양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.

② 기후리스크 대응

- 전 세계적인 기후 리스크를 완화하고 불가피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.
- 기후변화의 전환(규제, 시장, 기술, 평판 등) 리스크 및 기회(transition risks and opportunities)를 규명하고, 주요 전환 리스크가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·비재무적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 기반하여 이행 가능한 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한다.
- 기후변화의 물리적(온도 상승, 해수면 상승, 기상이변, 홍수, 가뭄, 태풍 등) 리스크 및 기회(physical risks and opportunities)를 규명하고 주요 물리적 리스크가

회사에 미치는 재무적·비재무적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 기반하여 이행 가능한 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한다.

- 주요 기후 리스크 및 기회 평가 결과를 전사 전략 및 리스크 관리 체계에 반영하여 리스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탄소중립 경제(net-zero economy)에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하여 나간다.

③ 온실가스 및 에너지

- 전사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,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 및 감축 활동을 통하여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, 탄소국경조정제 등 강화되는 국내외 규제 및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.
- 기존 노후설비의 저탄소 설비로 교체, 매립가스의 누출 방지 및 에너지 회수 증가, 소각열 회수율 향상, 친환경 차량으로의 대체, 에너지 효율향상 및 절감방안의 적극적 발굴을 통하여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한다.
-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을 통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나가고 RE100 등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증가하는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.

④ 원·부자재 및 용수 사용 효율성

- 원·부자재로 사용될 수 있는 자연자원의 종류와 양이 한정되어 있고, 원·부자재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다. 완제품 및 가공제품의 자원 사용량을 고려하고,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해 나가고, 재생가능하고 환경 부하가 낮은 원료나 물질로 대체하거나, 자원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설비 도입 혹은 기술 개발을 통하여 투입 자원의 양을 저감하고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가뭄 및 수질오염 등에 따른 생활용수, 농업용수, 공업용수 등에 사용 가능한 수자원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. 전 사업장에서 절수기 설치, 빗물 재이용 또는 용수 재사용 등의 조치를 통하여 용수 사용량 절감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.
- 자연자원의 고갈, 생물다양성 파괴, 지구온난화, 플라스틱 해양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 문제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인식하고,

선형경제(linear economy)에서 순환경제(circular economy)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.

⑤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자연환경 복원

- 전 사업장의 생물 다양성(biodiversity) 및 서식지 보호 및 보전 지역 민감 여부를 파악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 관리하고, 생물다양성과 주변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.
- 산림·습지·토양·하천·호소·지하수·해양 등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확대 및 신규 사업장 설치 시 환경 및 생태적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, 사업 철수시 재조림, 녹지화 사업 등 원래의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노력한다.

⑥ 폐기물 및 폐수

-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폐수의 발생을 최소화하고, 발생한 폐기물 및 폐수는 최대한 재활용 또는 재사용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폐수에 대해서는 발생, 수거, 보관, 처분 전 과정이 적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유지·강화해 나가며,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⑦ 유해화학물질

- 국내외 산업안전 및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준수하며,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, 내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·사용한다.

4 실행 방안

① 환경경영시스템 운영

- 서진캠은 사업활동에 특유한 환경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경영시스템(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)을 구축하고, 환경 관련 구체적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- 이사회와 경영진은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 및 관리·감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, 환경경영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실무진을 두어 인적·물적 자원을 지원한다.
- 서진캠은 환경경영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법인 및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정 및 내용을 포함한다.
- 협력업체, 거래처, 고객, 지역사회 등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보호 및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소통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임직원들이 환경보호 및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, 환경경영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.

② 사업장 환경 관리

- KPI 등 목표 관리, 교육 및 훈련, 지침 수립 및 운영, 내외부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하여 사업장 및 부대시설의 환경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친환경 생산공정과 최적 방지기술 적용으로 각종 오염물질 배출 및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.
- 운영시설 및 사업장 특성에 맞춰 환경경영 매뉴얼을 제정·운영하며, 설비 가동, 차량 및 사업장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.
- 사업장 개설·증설 및 철수 시에는 생태계 및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 리스크를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.

③ 제품 및 서비스 개발·유통

-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 속 리스크 및 기회요인을 평가하고,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 확대, 운송·물류 과정에서의 환경 리스크 평가를 통해 제품·서비스 개발 및 공급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.
-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의 친환경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그린워싱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된 친환경인증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.
- 저탄소·친환경·신재생에너지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.

④ 공급망 관리, 업체 선정 및 평가

- 공급업체나 거래처 등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정 시 환경경영 수준 등에 대한 항목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전 가치사슬 상에서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공급업체나 협력업체가 환경경영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, 공급업체 대상 환경경영 성과평가를 통해 공급망 전체의 환경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2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